

제일컨설팅-선더버드 손잡고

# 한인MBA 취업 지원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에 있는 헤드헌팅업체 제일휴먼리소스컨설팅(대표 김성민·이하 제일컨설팅)이 명문 MBA 과정의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에 나섰다.

제일컨설팅 김성민 대표와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선더버드 경영대학원 재니스 클라인위트 취업지원실장과 한인 학생 공동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선더버드는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국제 비즈니스 분야 최우수 경영대학원으로 매년 20~30명의 한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학교 당국의 초청으로 캠퍼스를 방문한 김대표는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계와 한인 기업의 채용 현황 및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표는 "한인 학생들이



제일컨설팅 김성민 대표(가운데)가 선더버드 경영대학원 재니스 클라인위트 취업지원실장(오른쪽) 및 한인학생회 김영진 회장과 캠퍼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내 한국계 또는 한인 기업 취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상당수는 뉴욕으로 오길 희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컨설팅은 우수 경

영대학원 출신을 비롯한 석박사급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산학협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상 기자